

논산문학제

## 시로 그리는 풍경



논산문학제

---

# 시로 그리는 풍경

논산문화원



◆ 책머리에

## 향기를 머금은 바람

권선옥\_논산문화원장

우리 논산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많은 문인을 배출한 것입니다. 뛰어난 문인들이 이미 많은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큰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논산문학제〉는 논산의 문인과 그들이 쌓은 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음미함으로써 삶이 더욱 향기롭고 윤택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술은 향기의 샘, 문학은 향기를 머금은 바람입니다.

# Contents

책머리에   향기를 머금은 바람	5
-------------------	---

## 시

구종현	참 좋은 봄날	10
권선옥	허물 / 별	11
길상호	쌍둥이	13
김건일	그렇구나	15
김관식	거산호居山好 1 / 다시 曠野에	16
김국래	시래기	18
김 산	오늘의 가난 / 슬픈 찬란	19
김선아	가시를 발라내다	21
김영선	내 젊은 날의 초상들을 위하여	22
김영수	꽃이불	24
김정수	개태사에서	25
김종우	나락 익는 냄새	26
김지현	늪은 식탁을 위하여	27
김형원	不純한 피	29
김진성	논산 사람들은	30
김형태	쇠별꽃	32
박승범	꽃잎	33
박영호	연꽃 핀 방죽 독길을 지나며	34
박용래	저녁눈 / 겨울밤	36

박재학	대도극장 옆 남문시장	38
박혜정	꽃, 숨	39
박희선	지비紙碑 / 녹슨 남포등	41
백순임	풍란을 보며	44
서우선	강경江景 옥녀봉	45
서정숙	연꽃	46
송윤영	엄마의 분꽃	47
유환숙	석화石花	49
윤문자	소금꽃	50
윤상숙	꽃길	51
윤숙희	보랏빛 인생	52
윤여건	나에게 쓰는 편지	54
윤여진	강경역	55
윤종섭	자화상	56
윤 충	송산리松山里	57
윤 효	자존自尊 / 못	59
이미숙	민들레꽃 피다, 지다	61
이상목	봄이 오는 소리	63
이상숙	참 좋다	64
이 순	내 가슴속 붉게 익어가는 열매 하나	65
이순애	바람은 왜바람	66
이영옥	어둠을 탐하다	68
이재훈	남자의 일생	69
이조구	주모	71

# Contents

이태관	자작나무	73
이형자	에텐의 물방울	75
임기원	산사 일기山寺日記	77
장서영	집	79
장석주	명자나무 / 잘못 배달된 화물	80
전민호	바람길	83
정우일	광대 14	85
정 훈	동백 / 머들령	86
지정순	그때 그 하늘 아래서	88
차학순	성동에서 탑정까지	90
황은경	포구의 시간은 바다가 정한다	92

## 시조

김광순	고래가 사는 우체통 / 뼈마디 하얀 시	94
김길순	눈 오는 아침	96
박영록	가을에 떠난 입	97
조근호	가을 편지	98
최은수	산촌의 겨울	99

\* 작품 선정 윤성희 이정우



논 산 문 학 제

詩

---

구 종 현

---

## 참 좋은 봄날

실비는 오지요.  
꽃밭은 젖지요.  
이제 보니 달팽이 한 마리가  
꽃밭에 심은 옥수수 줄기를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마침내  
오를 수 있을 만큼 올라간 것일까요  
이제 그만 하는 걸까요. 그쯤에서  
알맞게 휘어진 잎사귀 하나  
초록빛 꽃 붙들고 앉아  
하루 종일 있을 모양입니다.

제 한 몸  
잠적하기에는  
참 좋은 봄날입니다

---

놀이문화회·논산문인협회 활동. 1999년 《시문학》 등단. 시집 『떨물의 시간』 외. 충남 문학 작품상 등 수상

---

## 권선옥

---

### 허물 외1

스스로 벗어나는 허물은 투명하다

독사도 허물을 벗는다.

허물을 벗으면서 몸집이 커지고

이빨 속의 독은 더 독해진다.

허물을 벗어야지, 떼어내야지

하면서도 한 번도

허물을 벗지 못한다.

허물은 차츰 두꺼워지고

마음속의 독은 깊게 쌓인다.

---

1952년 논산 연무 출생. 1976년 《현대시학》 추천. 시집 『떠도는 김시습』 외. 신석초 문학상 등 수상

## 별

나의 어둠은 네 배경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너를 바라보면서도  
왜 네가 별이 되었는지는 모를 것이다  
내 가슴에 떨어진 술한 눈물과 그리움  
뉘우침 같은 것들로  
빛이 되었음을 짐작이나 하겠는가  
애초에 다만 하나의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다는 무심한 사람들에게  
나의 어둠을 말할 수는 없다  
너의 배경에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위어 가는 그 많은 날들의 그림자를  
아무도 보지 못하였으리라  
다만다만 하나의 반짝이는 너를  
나는 가슴에 담고  
앞으로도 너를  
사람들은 별이라고 부르리라

---

길 상 호

---

## 쌍둥이

아픔과 슬픔처럼 닮아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상현달과 하현달은 어둠의 방향이 다른데도  
엄마는 매번 똑같은 옷을 두 벌 샀다

그럴 바에야 그림자를 입고 다닐 거예요,  
그때부터 우린 서로 달라지는 게 지상의 목표가 되었다

동생이 폭식을 즐기면  
나는 거식이 즐거웠다

동생이 심장에 불을 가져다 놓으면

나는 배꼽에 얼음을 채워놓았다

참다못한 엄마는 우리를 사진관에 데려가  
하나의 액자 속에 나란히 앉혀 사진을 찍었다

---

1973년 논산 벌곡 출생. 2001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 시집 『오동나무 안에 잠들다』 외. 김종삼 시문학상 등 수상

플래시가 터지고 빛이 돌을 묶어놓는 동안  
나는 몰래 한쪽 눈을 감았다

너는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는구나,  
엄마가 나의 감은 눈을 칼로 긁어낼 때

일란성 아픔과 슬픔 사이에  
불구의 형제가 하나 더 태어났다

---

김 건 일

---

## 그렇구나

버리려고 밤낮 모은다  
쉬지 않고 일생

떠나려고 어제도 오늘도  
만나고 또 만난다

지려고 태양도 열심히  
뜨고 진다

헤어지려고 뜨겁게  
사랑하며 울고 분다

지구를 떠나려고  
눈썹 휘날리게 산다

---

1973년 논산 연무 정착. 2020년 《한내문학》 등단. 시집 『그러려니 하고』 외. 한내 문학상 수상

---

김관식

---

거산호<sup>居山好</sup> 1 외1

산<sup>山</sup>에 가 살래.

팔밭을 일궈 곡식<sup>穀食</sup>도 심구고

질그릇이나 구워 먹고

가끔, 날씨 청명<sup>淸明</sup>하면 동해<sup>東海</sup>에 나가

물고기 몇 놈 데리고 오고

작록<sup>爵祿</sup>도 싫으니 산<sup>山</sup>에 가 살래.

---

1934년 논산 연무 출생. 1955년 《현대문학》 추천. 시집 『낙화집』 외



## 다시 曠野에

저는 항상 꽃잎처럼 겹겹이 에워싸인 마음의 푸른 창문을 열어놓고  
당신의 그림자가 어리울 때까지를 가슴 조여 안타까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그러면 저의 옆에 가까이 와주십시오.

만일이라도…… 만일이라도……

이승 저승 어리중간 아니면 어데든지 당신이 계시지 않을 양이면

살아 있는 모든 것의 몸뚱어리는

암소 황소 쟁기결이 날카론 보습으로

갈아헤친 논이랑의 흙덩어리와 같습니다.

따순 봄날 재양한 햇살 아래

눈 비비며 싹터 오르는 갈대순같이

그렇게 소생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

김 국 래

## 시래기

처마 끝에는  
우수 지난 지금도  
절실했던  
어머니의 가을날이  
걸  
려  
있  
다

---

1966년 논산 양촌 출생. 《문학사랑》 등단. 저서 『그대라는 이름 하나』(공저) 외.  
한국인터넷문학상 수상

---

김 산

---

## 오늘의 가난 외1

그리하여, 나는 흩어진 생각의 모종들을 그러모아 얼굴의 이  
곳저곳에 아무렇게나 흩뿌리는 것이다

어떤 것들은 하나의 쌍떡잎으로 또 어떤 것들은 둘의 외떡잎으  
로 뿔뿔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아서라, 아서라, 다시금 그것들을 두꺼운 손바닥으로 가만히  
재우곤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귀와 들리지 않는 눈으로 신기시장 어느 구석에서  
낮술을 마시는 초로의 사람들

가을도 오기 전에 가을전어 타는 냄새가 검버섯보다 고소하구나  
여리고 희뿌연 한 빛이 유리문에 붙은 셀로판지 사이로 새들어  
온다

다섯 평도 되지 않는 시집을 애써 발문하려는 지각없는 선풍기  
는 아까부터 빼격거리고,

무진장한 슬픔이 흘러넘치는 잔 위로 햇살 한 줍이 소금처럼  
흩뿌려진다

---

1976년 논산 연무 출생, 2007년 《시인세계》 등단. 시집 『키키』 외. 2017년 김춘수  
시문학상 등 수상

## 슬픈 찬란

아침에 일어나면 삭발한 뒤통수를 천천히 어루만진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불룩하게 솟아오른 언덕, 그 위에 핀 마른 잔디들  
까슬까슬한 생각들이 손바닥을 쓰다듬는다  
손금 위로 흐르는 강물과 강물, 그 사이에  
가까스로 가까스로 입을 뻐끔거리는 다슬기와 돌고기 몇  
오래 전에 죽은 슬픔이 물돌 아래, 깊이 잠들어 있다  
밤이거나 새벽이거나 눈을 감고 천정을 보면서 빌고 또 빈다  
예수야, 슬픔이 가득 차올라 비로소 그 슬픔이 광명하게 해다오  
부처야, 세상의 가난이 나로 말미암아 너의 눈부심에 소금이  
돼다오

어김없이 아침의 빛은 나를 깨우고  
배갯잇 아래, 수북하게 떨어져 있는 살비듬  
나뭇잎의 각질이 떨어지고 있다, 아 가을  
여우비가 오시는 거리를 천천히 걸어가는 긴 머리 소년  
소주병에 담은 참기름 냄새가 발끝에 흥건하다

---

김 선 아

---

## 가시를 발라내다

선인장에 주저앉듯 당신의 문전에 주저앉은 적 있었어. 내 몸속 뼈대 가운데 가장 혹독한 가시는 당신의 묵묵부답. 폭염의 한철, 물 한 방울 들이킬 수 없었을 선인장이 빼어든 응답은 하필, 가시. 짙레꽃 철조망 위를 기어가는 자벌레의 배면같이, 사막의 슬하에 엎드려 한사코 묵언을 고집하는 당신의 침탐 끝을 올려다보았어. 족집게는 그래, 눈물이었어. 꽃차례의 입김도 무용지물, 눈물이 사막 깊숙이 스며들기를 기다려 눈시울에 박혀 있던 가시 발라내면, 포르르 맑은 생수 한 컵쯤 받아낼 것 같은 어느, 멀리서 쓰름매미 또 한 번 자지러지는 처서 무렵이었어.

---

1955년 논산 부적 출생. 2011년 《문학청춘》 등단. 시집 『얼룩이라는 무늬』, 김명배 문학상 대상 수상

---

김영선

---

## 내 젊은 날의 초상들을 위하여

어느 날부터가  
내 마음의 빈터에  
방명록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 때문에 웃고 울었는지  
꼬박꼬박 적어 놓았습니다

먼 훗날

보내고도 보내지 못하고  
미워하면서도 원망할 수 없는  
그렇게 보낸 내 젊은 날의 초상들

백발이 들어가고  
선명했던 사진들도 빛바래지면

---

1955년 논산 성동 출생. 《문학사랑》 등단. 서산예술인상 수상

굵히고 할퀴 내 젊은 날의 초상들  
그들을 다시 사랑하려 합니다

---

김영수

---

## 꽃이불

들마을엔

자운영

빨간 꽃이불

산마을엔

진달래

분홍 꽃이불

봄별

환한 낮

곱게 펴 놓 꽃이불

별

나비

고운

꿈을 꾸고 갑니다.

---

1940년 논산 연산 출생. 1980년 《아동문예》(동시)·《한국시》(시) 등단. 김영일아동  
문학상 수상



---

김정수

---

## 개태사에서

천호산 치마폭  
삼천 승려 보듬던  
귀 떼어진 철화鐵鑊이 외롭다.

오백 년 영화는  
삼존석불三尊石佛  
빛바랜 어깨로 흐르고,

법화,  
연등,  
그 많던 인걸人傑들  
어디갔나…….

황산벌에  
점점이 흩어진  
천년의 꿈이여  
영혼이여…….

---

1941년 논산 연산 출생. 2009년 《현대시》 등단, 《해동문학》 추천. 저서 『情』 외

---

김종우

---

## 나락 익는 냄새

참새 떼만 남아  
무어라 지껄이며 날아오른  
역사가 깊게 누운

황산벌

눈감은 지 오래된 궁녀들의  
젖무덤은 아직도 풍만하다

잠은 깊으나 젖샘은 마르지 않아  
능 속까지 뺨어 내린 실뿌리

젖내 나는  
난알을 익힌다

---

1961년 논산 부적 출생. 1994년 《창조문학》 등단. 시집 『시골학교』 외

---

김지현

---

## 늙은 식탁을 위하여

수령 350년의 느티나무가 쓰러졌다  
제재상이 실어다 기계톱으로 잘라놓으니  
식탁 여섯 개가 나왔다  
그 중 맨 가운데의 심재를  
다듬고 기름칠하고 철제 다리까지 달고서  
우리 집으로 모셔왔다

생나무를 제대로 건조할 틈도 없이 끌고 왔으니  
점점 비틀리고 금가고 울다가  
몸살을 앓기 시작한다  
아무리 쓰다듬고 닦아줘도  
화를 거두지 않는다  
수령 60년의 내가 브두셀라 같은 할아버지 나무를  
자르고 켜서 끌고 왔으니  
순순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계다  
아직 수액이 마르지 않았는데  
체온도 그대로인데

---

1956년 논산 강경 출생. 1997년 《현대시학》 등단. 시집 『심장을 가졌다』 외. 미네르바문학상 수상

기다리면 자연히 피가 마르고 육탈되어  
순한 가족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햇살과 바람이 나무를 살찌게 했고  
내가 모르는 새와 벌레들이 만평 그늘에서 쉬고 양식 삼아서  
그 넉넉한 품새를 집안에 들이고 싶었던 것인데  
다시 물릴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살살 달래고 같이 옮겨주며 동거할 수밖에  
달그락거리며 같이 밥 먹는 식구가 될 때까지

---

김 형 원

---

## 不純한 피

不純한 피!

不純한 피는 靜脈으로 도라가라.

只今は 正午이다, 盛夏이다.

生命의 絶頂이다, 動脈의 철이다.

細菌으로부터 人類에까지

누리의 구석구석에,

行進의 喇叭소리가 들린다.

오, 不純한 피!

너는 도라갈 때이다(너의 宿命으로).

나는 괴로웁다,

머리에서 발톱까지

不純한 너의 蹂躪으로

光明의 한낮을 闇黑의 한밤으로

밧구어 사는, 오, 나의 슬픔!

---

1900년 논산 강경 출생. 1918년 《청춘》 등단. 시집 『아! 지금은 새벽 네시』 외

---

김진성

---

## 논산 사람들은

논산 사람들은  
눈만 감으면  
관촉사 은진미륵이 떠오른다.

논산 사람들은  
눈만 감으면  
강경 미내다리가 떠오른다.

논산 사람들은  
눈만 감으면  
개태사 가마솔이 떠오른다.

이건  
죽어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묻는다는  
세 가지,

---

1962년 논산 연무 출생. 1989년 《우리문학》 추천. 시집 『중이 되고 싶다는 여자와』 외. 정훈문학상 작품상 수상

진짜  
논산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세 가지.

은진미륵을 보았더냐?  
미내다리를 보았더냐?  
개태사 가마솥을 보았더냐?

---

김 형 태

---

## 쇠별꽃

꽃이 지는 소리를 들으려 내려왔다가  
그만 꽃이 되어 버린 앓은뱅이꽃,  
너의 얼굴을 보려면 일단은 앓아야 한다  
너의 눈빛과 입맞춤하려면  
키를 한 자는 더 낮추어야 한다  
너의 마음과 영혼까지 읽으려면  
눈, 코, 입,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감히 인간을 머리 숙이게 하는,  
끝내 쭈그려 앓히고야 마는  
너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큰 꽃!

---

1965년 논산 양촌 출생. 1996년 《문학과예술》 등단. 시집 『아부지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외. 200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최 〈시(詩) 공모전 최우수작〉 등 수상



---

## 박승범

---

### 꽃잎

여린 꽃잎이  
물결을 타고 흘러간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 한  
소녀의 창백한 미소가 어른거린다

초가집 처마를 흔들며 골목을 훑던  
절규여! 마른 아우성이여!  
춤을 추듯 너울거리며  
먼 하늘가에 닿았을 꽃잎이여!

궁핍보다 더 깊은 고독에 갇혀  
한 곳만을 응시하던 소녀  
꿈꾸던 세상을 만났을까?

먼 기억으로부터 점점 차오르는  
황산나루 물결이 어지럽다

---

1952년 논산 강경 출생. 1994년 《오늘의문학》 등단. 시집 『새벽달로 어둠을 쓸며』 외. 한국인터넷문학상 수상

---

박영호

---

## 연꽃 핀 방죽 독길을 지나며

삶이 벅찼던 농투성이 목숨을 던진  
용<sup>龍</sup>의 말<sup>馬</sup> 무덤 옆 주내<sup>舟來</sup> 방죽에  
연꽃이 핀다.  
순박하던 그 마음의 환생이란다.

남루했던 농부는 연꽃으로 환생해서  
비로소 흙탕물 방죽에 다리를 깊게 담그고도  
고고하고 향기롭다.

세사<sup>世事</sup>의 오예<sup>汚穢</sup>에 물들지 않고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을 태우는 촛불 같은  
혹은 자신을 다 태우고  
마지막 남은 하얀 촛농 같은  
향기로운 꽃잎을 흔든다.

그 꽃잎을 눈길로 마주잡고 흔들며  
고향집으로 드는 먼발치 길목 방죽 독길

---

1962년 논산 상월 출생. 1994년 《문학세계》시 등단. 시집 『섬을 향해 떠날 목선(木船)을 기다리며』 외. 대덕문학상 수상

환생 전 이생에서 남은 날  
겨울지라도 고고하고 향기롭자고  
혼잣말을 한다.

---

박용래

---

## 저녁눈 외1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말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 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에만 다니며 봄비다

---

1925년 논산 강경 출생. 1955년 《현대문학》 등단. 시집 『씨락눈』 외. 충청남도 문학상 등 수상

## 겨울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 밭에 눈은 쌓이리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 밑 달빛은 쌓이리

밭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

## 대도극장 옆 남문시장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그해 겨울 세상에 폭설이 퍼부은 다음 날 개미 한 마리 지나지 않는 지금은 없어진 대도극장 옆 남문시장 그 시장판에서 납작만두 만들며 손을 불던 할매,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불어오는 눈보라 뒤집어쓰며 하모니카 구성지게 구루마 밀던 절름발이, 눈곱 낀 눈 흘기며 와 사노 와 사노 내사마 저래되든 각 죽어뿔까다, 니 밥은 묵고 다니나 이리 온나, 어제 남은 납작만두 이리저리 뒤집어 데워서 묵어라 묵어야 살제, 밀가루 덕지덕지 말라붙어 나무판 같은 앞치마 위로 식용유 한 방울 뜨거움 못 견뎌 떨어졌다. 그 시장판 집 잃고 못 먹어 배가 있는지 없는지 콧물 말라붙은 위로 흘러내리는 콧물 흘쩍이던 아이, 수세미 고무줄 늘어뜨리고 좌판 질질 끌며 다니며 청송맞은 노래하는 청년, 산발하고 치마 뒤집어 쓴 채 히죽거리는 미친 년, 양키물건 서너 개 손에 쥐고 차마 용기 없어 이리저리 기웃거리던 할배, 모두 불러 와 사노 와 사노, 각 죽어뿔은 언제나 편하겠노, 느그들은 죽지도 몬 하제, 납작만두 서너 개 담아주던 그 할매, 모진 소리하는 얼굴에 남모르는 미소가 보이고 허기 달래줄 만두 몇 개 받아 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이 개미 한 마리 지나지 못하는 그런 날이면 할매 눈치 보며 모여들던 그 시장판을 기억할는지 모르겠다

---

1957년 논산 부창동 출생. 1999년 《펜넷》 동인으로 작품 활동 시작. 시집 『이제 그대가 그리워 할 차례입니다』 외. 대전펜문학상 수상

---

## 박혜정

---

### 꽃, 숨

숨은 것도 다 들킨 봄이다 삼월의 봄꽃들을 말려 지갑에 90도로 접어놨다 꽃은 그리움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피는 거다 가끔 난 당신에 대해 마음만 앞선 것은 아닌지 할 때가 있고 또 가끔은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나인가 할 때가 있다

그렇게 뭘 모를 때가 많다

몇 해 전부터 당신은 나의 세계를 경계 없이 들락날락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는 없고 당신만 있다

맑은 하늘이 나무에 걸린 가을 나뭇잎의 날씨를 만들자는 당신의 작은 숨소리가 지금도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날아가지 못했다 꽃피우지 못한 말들이다 또 부메랑처럼 내게 다가온다 밀려와 나를 생각의 굴레에 빠뜨린다

무얼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없고 나 없는 당신의 세계를 말하고자 한다

당신의 세계는 어지러운 생각이다 더러운 생각이다 당신을 생각하면 머리가 깨진다 깨진 머리카락들이 징글징글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숨소리다 꽃이 숨을 내뿜는 공기다 꽃이 피워 올린 생각이다

제발 가, 다시 오지 말고 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생각이다

생각을 기차역에 두고 온 날이면

구두가 먼저 나를 벗는다

구두 굽에 달라붙은 당신, 내가 생각을 버리고 왔는데 생각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야, 하고

어디선가 내 밤을 보고 있는 당신의 숨소리가 들린다



---

박희선

---

지비(紙碑) 외 1

대적광전(大寂光殿)

오래 기도했던

달이나 떠오를 양이면

체온이 스민

돌 하나를 남기고

멀리 떠나는

그윽한 새벽이거라

---

1923년 논산 강경 출생. 1946년 《동백》 등단. 시집 『새앙쥐와 우표』 외. 빛과구원  
의문학상 등 수상

## 녹슨 남포등

소도독눔 고개 넘으면  
외딴집이 한 채  
눈발에 주저앉아  
저 혼자 울었다

매운 연기에 그을린  
낮은 처마 밑에는  
작은 등불 하나  
눈보라 속에  
밤새도록 기침까지 했다

육손이 할머니가  
이승에 걸어두고 가신  
녹슨 남포등은  
오랜 세월  
기름 한 방울 없어도  
바위에 떨어져도 꺼지지않았다

동짓달 초이레 오늘 밤은  
서른세 번째 기일

그리운 불빛을 밟으면서  
어둡고 추운 곳에서  
귀여운 늑대들이  
하나 둘 모여들 있었다.

---

백순임

---

## 풍란을 보며

여기에 오느라 여러 날 지나온 거니  
소리가 되지 않은 말 향이 되고  
오늘은 이른 새벽  
유리창에 비춰든 별빛에 눈빛 맞추었다

잘 지내는 거니?

풍란 너머에 너를 보느라  
나는 귀 열고 눈 떴다

---

1958년 논산 화지동 출생. 2019년 《문예사조》 등단

---

서우 선

---

## 강경江景 옥녀봉

달무리 흠어  
물 위에 띄우니 새벽이 열리고  
밀쳐 지는 먼둥은 아직은 고요한데

비단강 물새 울음소리 강물에 서고  
쏟아진 별 세다 보면  
옥녀 전설 이 마음 파고들며

갈썩 꽃들 흠내음 보듬고  
어둠을 지우는 속살로  
옥녀 웃는 선경仙境

---

1938년 논산 채운 출생. 《한국문인》 시·수필 등단. 시집 『港津에서』 외

---

## 서정숙

---

### 연꽃

수없이  
부대껴 온 세월 속  
군살 박힌  
발 뒤꿈치  
깊은 골 속에 숨겨 놓고

푸른 대공으로 오르는  
군살 박힌 참회  
가슴에 새겨 놓은  
주홍 글씨로  
피어 납니다

파르르  
이슬 같은 몸짓으로  
일어나는  
묵언 수행

---

논산문인협회 활동, 대전엑스포 대회 백일장 장려상 수상

---

송 윤 영

---

## 엄마의 분꽃

어느 해인가  
화단의 분꽃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시던 엄마  
“이것 좀 바라. 내가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번져서 많아졌다.”  
나는 그것이 평생 일만 하며 하지 못한  
엄마의 숨겨진 꿈에서 피어난 향기 같아  
말없이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 한밤에도 나와  
향기를 맡고 또 맡았다  
그렇게 몇 해를 그 분꽃들을 보았다  
하지만 흔적도 없는 세월은 엄마의 몇 줄 남지 않은  
감성의 실오라기조차 훑어갔는지  
어느 날 엄마는 화단의 분꽃들을 모조리 베어냈다  
스산한 바람에 힘을 잃은 푸른 잎들이 눕듯  
엄마의 분꽃들도 누렇게 누워  
자취를 감추었다

---

1965년 논산 노성 출생. 2002년 《문예사조》 등단. 시집 『내안의 뜰』 외. 예술문화상 수상

슬프다 슬프다 해도 아름답게 여겼던 것이  
귀찮게 느껴지는 그 때  
그보다 더 슬픈 게 있을까?  
아름다움을 보듬었던 엄마의 생각과  
사슴 같았던 눈이  
세월의 고단함을 물리치고  
이제는 화단에 분꽃을 심고  
환한 웃음으로 바라보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다



---

유 환 숙

---

석화 石花

마음을 두지 않아  
괜찮다고 했지요  
바람 같은 만남이었고  
작은 몸짓은 잊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말 없는 돌에 꽃이 피던 걸요  
물 흐르듯 지난 세월이라  
괜찮다고 하셨죠  
흉터가 남지 않을 만큼  
작은 아픔이라  
바로 잊혀질 줄 알았지만  
물방울 자국마다 열꽃이 피던 걸요  
향기 머문 언저리에  
시들지 않는 꽃은  
바늘 끝 아리게 누비며 오던 걸요

---

## 윤문자

### 소금꽃

다 늙으신 어머니가 꽃으로 보인다  
꽃이야 단 열흘 피어 있기도 어려운데  
구십 년을 피어 있는 꽃이 있다니

피와 살을 모두 내어놓고  
물기 하나 없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소금꽃이 생각난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눈금 하나 기울지 않는  
가볍고 아름다운 꽃  
어머니꽃, 소금꽃

---

1941년 논산 성동 출생. 1995년 《문학과이식》 등단. 시집 『하늘계곡』 외. 충남문학대상 수상

---

윤 상 숙

---

## 꽃길

비가 내렸어요  
아기 입술 같은  
꽃비가

민들레 홀씨 되어 날으는 꽃길에  
폴폴폴 날아볼까  
채비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 길이 안타까워  
갓난아이 웅알이하듯  
연분홍 양탄자에  
홀씨 되어 날으는 길

안내하는 도화잎이  
활짝 웃어 보이네요

---

윤 숙 희

---

## 보랏빛 인생

서산 너머 복숭앗빛 태양이

수줍은 미소로

어둠속 이별을 고할 때

좁은 어깨 가득 짊어진 삶의 무게

내려놓자 내려놓자

발버둥 치면 칠수록 멀어져가는 그대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그 속에 담긴 나의 꿈

그대여

떨군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소리쳐봐요

다시 또다시

꿈을 위하여

깃털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대 삶을 만들어 보아요

---

1973년 논산 연무 출생. 2022년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시 부문 등단

약해지지 말아요

약해지지 말아요

삶은 때로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겨울에 차가운 비바람에도

지치고 앓고

푸르름을 지키내는

혈혈단신 한그루 소나무처럼

긴 터널 속에서

오늘도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면 펼쳐질

그대의 새로운 삶

또 하나의 스케치로

완성되는 보랏빛 향기

---

## 윤 여 건

### 나에게 쓰는 편지

그림자를 지팡이 삼아 걸어온 길  
너의 등뼈는 마음의 사막에 무너져 내렸다.

두려움의 조각을 모아 이름 붙이면 다시 강물이 흐를까?  
입에서 떨어진 트라우마가 구슬처럼 굴러간다.

가을빛 위로 페달을 밟으며 너에게 언어의 찌를 담근다.

고통은 구원의 바다  
그 위에서 섭리의 키를 잡고 흔들리고 있으니  
너는 아름다운 사람

세상의 눈과 마주하지 못해 불안할 때면 마음에 드리운 언어  
의 찌를 물어라.

나는 석탄기의 곤충처럼 너의 등뼈가 되리니  
유리창에 글자처럼 흐르는 사랑의 노래가 되리니.

---

1971년 논산 상월 출생. 2008년 《시로여는세상》 등단. 시집 『새를 꿈꾸지 않았다』 외

---

윤여진

---

## 강경역

떠나지지 않는 자  
여기 와 떠나라

빛나는 작별이 급할 때  
여기와 날을 잡으라

못난 청춘을 묶는 쪽방과  
고삐를 걸어 나와  
기막힌 부흥을 끝안고  
시린 꿈바심 끝내는 날

부진의 세월을 탁탁 털고  
시작도 되고 끝도 되는  
이상한 기차를 홀로 타라

---

윤종섭

---

## 자화상

이 세상에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단 하루도 숨쉬기 어려워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나에겐

밤새도록 타오르는 촛불,  
얼음벽을 깨치고 일어서는 영혼이여.

---

1968년 논산 연무 출생. 1999년 《해동문학》 추천



## 송산리 松山里

계룡산이 바짝 다가앉은  
솔피 마루에 올라서면  
전에 친숙했던 바람을 또 만나게 된다

모두가 일시에 달려와 가슴에 안기는  
떠나간 사람들의 생각과  
봄날의 아지랑이 꿈

유년시절 가장자리 숨겨둔 상처마다  
풀냄새 같은 시간의 조각들이  
아름답게 와 머물며 보듬는다

한숨 돌리시던 아버지의 지게 위  
보릿단의 여린 때깎과  
설핏한 앞자락을 스치던  
어머니의 반짝이는 호밋날  
한나절 허기 속의 지쳐버린 꿈들

---

1942년 논산 연산 출생. 《문학사랑》 등단. 시집 『나는 늦게서야 알았다』 외. 정훈 문학상 수상

맨살로 다가오는 그리움이 쌓여가며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이다  
봄날이 가고 있는 것이다

## 자존自尊 외 1

무서리 하늘 높이 기러기 행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헬기가 굉음을 내며 스쳐갔으나, 그 대오를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

1956년 논산 부적 출생. 1984년 《현대문학》 등단. 시집 『물결』 외. 유심작품상 등 수상

## 못

가슴에 굽은 못을 박고 사는 사람들이 생애가 저물어가도록  
그 못을 차마 뽑아버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의 가장 뜨거운 부  
분을 거기 걸어놓았기 때문이다.

## 민들레꽃 피다, 지다

팔거리장 지나는 길 어디였는지 아마  
작가 사방팔방 안 돌아댁기는 데가 있으야지  
밀가루 배급받아 어미가 끓여준  
수제비 한 그릇 맛나게 먹고  
지 이빨맨치나 누런 민들레꽃 따러 간다고 나간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쩌다 거기까지 갔는지는 아무도 몰려  
이십 리 길은 족히 될 텐디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멀리서 시켜면 괴물같이 생긴 것이  
하얀 콧김 뿜으며 쿨렁쿨렁 달리는 걸 보든  
환장하게 좋아했었다네  
팔 한 짝은 아직 못 찾았는지  
개짐 추단도 못하는 처녀가  
그 소갈머리 없는 천치가  
글씨, 민들레처럼 귀를 바싹 대고  
선로 가운데 엎디어 있다가

난생 처음 기차 한번 타보고 싶었던 거여  
논둑에서 찾아낸 바른손에 민들레꽃  
열아홉 나이처럼 온통 다홍빛이 되었더라  
아주 잠시 머물다  
팔거리장 서던 계룡역 지나  
기차 한 대,  
삼십 년 옛이야기 속을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다

---

## 이 상 목

---

### 봄이 오는 소리

동지팔죽을 이웃과 나누며  
눈 속에 돌아나는 은행잎 봉오리에서  
고드름 익어가는 한겨울 양지쪽에  
그리고  
까치 새집 짓는 설날 아침  
얼어붙은 임진강 나루터에서,  
당신은 들으리  
봄이 오는 소리

---

1943년 논산 강경 출생, 2007년 《한국문인》 시 등단. 시집 『목타는 강』 외. 경기 수필문학상 수상

---

이상숙

## 참 좋다

길고 하얀 손가락을 가진  
뽀송뽀송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나의 이야기  
재미있다 두 귀 쫑긋 세우고  
고개 끄덕끄덕  
응수하며 들어주는 너

사과같이 빨간 두 볼을 가진  
뽀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어떤 이야기 들려줄까!  
궁금해 궁금해  
기대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

나를 환하게 미소 짓게 하며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하며  
나를 살아 숨 쉬게 하는 너  
네가 있어  
나는 참 좋다

---

1968년 논산 강경 출생. 《호서문학》 등단



## 내 가슴속 붉게 익어가는 열매 하나

봄날에는 당신이  
내 밑둥 간지려 꽃피우더니  
무더운 여름 한낮 땡볕 아래  
푸른 열매가 맺혔습니다  
행여 떨어뜨릴세라 조심조심  
뜨거운 불볕으로 나를 익혀  
한가을 여물어가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내 가슴속 붉게 익어가는 열매 하나,  
그건 놀랍게도  
당신 모습 아니겠어요?

## 바람은 왜바람

지구의 어디쯤 서 있는 걸가요  
별똥별은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바람이 어디로 불지도 모르구요

별똥별이 아름다운가요  
함부로 부는 바람이 괴로운가요

별똥별이 아름다운 것은 빛이 아니라 그 너머 떨어질 곳을 상  
상하기 때문이라죠

바람이 괴로운 것은 그 의미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른 것은 별똥별이기도 하지만

이리저리 방향 없이 부는 바람입니다

국화를 삼목했어요 시들시들하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아요 바  
람이 깨워 잠들지 않고 견딘다는 군요 바람은 왜바람 그대에게  
만 부는 바람은 아니죠 어디에나 불어요 바람의 방향에는 각도

기角度器가 필요하지요 사막의 오아시스는 나의 전유물이 아니었  
어요 왜바람을 겪어본 사람의 것일 테니까요 얼마나 많은 날 중  
심을 잡기 위해 애태운 결과 그게 바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가 아니면 속절없는 세월이었을 걸요

왜바람을 미워할 텐가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 왜바람 : 이리저리 방향 없이 함부로 부는 바람

---

## 이영옥

### 어둠을 탐하다

한낮에 너무 멀리 뺏어나간 바다는  
겨드랑이에 그림자를 숨기고 돌아왔다

사방으로 그림자 몸을 풀면  
이름 하나 하나  
더욱 빛나는 전광판

더듬더듬 쪽문을 낸  
두려움과 안식 사이  
생의 거리를 좁히며  
벗겨진 살갗의 숨구멍으로  
짠 바닷물이 스며들었다

나에게로 오던 사람들이 되돌아간  
고요를 적신 문패

어둠으로부터 시작된 목숨이  
누구에게 빛났던 적 있을까

---

1968년 논산 연무 출생. 1993년 《해동문학》 등단. 시집 『어둠을 탐하다』 외. 월간 문학상 등 수상

---

이재훈

---

## 남자의 일생

풀잎에 매달려 있다가  
툭,  
떨어진 애벌레.

아스팔트 위를 기어간다.  
사람들의 발자국을 피해 몸을 뒤집는다.  
뱀가죽이 아스팔트에 드르륵 끌린다.

그늘을 찾아 몸을 옮기는 데  
온 생을 바쳤다.

늦은 오후.  
뱀가죽이 뜯어진 애벌레 위로  
그림자 찾아들고  
온 몸에 딱딱한 주름이 진다.

나비 한 마리.

---

논산 성장(1989~2019). 1998년 《현대시》 등단. 시집 『내 최초의 말이 사는 부족  
에 관한 보고서』 외. 한국서정시문학상 수상

공중으로 날아간다.

풀잎이 몸을 연다.

---

## 이 조 구

### 주 모

마을 어귀 삼거리 주막집  
까막눈이 주모는 뒷마당에  
영상에 걸터앉아  
개다리소반에 술상을 차려 놓고  
건넌마을 김서방과 마주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얼굴이 벌게져서 미소를 지으며  
권주가를 부르며 술잔을 기울인다  
그때 안골 사는 박서방 딸 금순이가  
찾아와 주전자를 건네며  
아주머니 아버지가 막걸리 한 되  
외상으로 달라고 하는데요  
주모는 주전자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부뚜막에 묻어놓은 술 옹기 항아리에서  
막걸리 한 주전자를 퍼서 주고는  
부뚜막 앞 시커멓게 그을린 흙벽에  
부지깽이로 그시자 까만 흙벽 칠판이

뽕양계 글씨가 써진다  
까막눈이 주모의 외상장부 첩판에는  
주모만이 알고 있는 박서방 김서방 등  
마을 남정네들의 이름과 숫자가  
그림처럼 군데군데 그려져 있네



## 자작나무

1

너무 멀다

눈이 쌓아놓은 고요가 깊어

한 발짝만 떼어도 깊은 수렁이다

무게를 견디지 못한 눈덩이가 바닥을 치자

적막이 깨진다 사냥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저 산 넘으면, 자작나무

온통 자작나무

눈 속에 파묻힌, 강물에 떠내려 간

친구의 얼굴, 그 피가 빠져나간 험췌한 얼굴들이

온통, 자작나무

5

자작나무 숲에 서 보았습니다

손 시린 얼굴들이 서로에게 손 내미는

맞잡지 못하는 슬픔들이 가득합니다

어디까지 오셨나요

빈산의 눈들이 조금씩 제 몸피를 줄이는 동안  
작은 눈들이 하나, 둘 깨어납니다  
떨어진 눈덩이에 파문이 입니다  
바람을 타고 갑니다 진달래 꽃 사태로 피어갑니다

그 속에 백두대간 치달아 내리는 흰 등뼈의 사내 하나 보았습  
니다

\* 백석 시인의 『자작나무』 중에서

---

## 이 형 자

---

### 에덴의 물방울

처마 끝에 맺혀 있던 고드름  
햇볕 이기지 못하고 녹는다  
잠시 눈 깜짝하는 사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차라리 얼마나 정교한가

거기에는 규율도 법칙도 없다  
참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냥 수직일 뿐  
수직일 때 가장 정직한 것이다

오롯이 투명하게 정직할 땐  
오직 차례에 의한 것일 뿐  
땅에 닿는 물방울의 순서가  
에덴동산이 아니던가  
그땐 그런 줄도 모르고

---

1944년 논산 강경 출생. 1998년 《창조문학》 등단. 시집 『숨쉬는 닳나무』 외. 문학  
시대 문학대상 수상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부렸다 폈다 애만 태웠다  
앞만 보고 뛰어갈 때  
처마 밑의 고드름 물방울  
슬쩍 나를 짚어보고 간다

---

## 임기원

---

### 산사 일기山寺 日記

풀잎자리  
팔베개로 누워 띄워 보내는  
이승 저쪽

구름 한 자락으로  
나를 보내고  
귀를 연다.

구슬마다 말씀이 되어  
흐르는 산하山河  
독경소리로 업혀 간다.

꽃으로 수놓은 돌 병풍  
눈을 감고서야  
세상을 본다

나를 버리는 곳에서

나를 찾는

이승의 안팎

나를 보내고

나로 돌아온다

---

장서영

---

## 집

닭이 우는 집

별이 세수하는 집

고양이가 밥 먹으러 오는 집

달빛도 숨을 멎는 집

댓잎보다 새들이 더 매달려 있는 집

채송화 제비꽃 봉숭아 틈새를 메우는 집

작달막한 굴뚝에서

구수한 밥 냄새 무릎을 꿇는 집

밤마다 앓는 소리

바늘과 실이

길을 내는 그 집

엄마가 살고 있다

---

1968년 논산 출생. 2010년 《문학공간》 등단. 시집 『눈꺼풀 사이로 빠져나가는 저녁처럼』

---

## 장석주

### 명자나무 외1

불행을 질투할 권리를 네게 준 적 없으니

불행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마라!

불행 앞에서 비굴하지 말 것. 허리를 곧추 세울 것. 헤프게 울지 말 것. 울음으로 타인의 동정을 구하지 말 것. 꼭 울어야만 한다면 흘날리는 진눈깨비 앞에서 울 것. 외양간이나 마른 우물로 휘몰려가는 진눈깨비를 바라보며 울 것. 비겁하게 피하지 말 것. 저녁마다 술집들을 순례하지 말 것. 모자를 쓰지 말 것. 콧수염을 기르지 말 것. 딱딱한 씨앗이나 마른 과일을 천천히 씹을 것. 다만 췌기풀을 건디듯 외로움을 혼자 견딜 것.

쓸쓸히 걷는 습관을 가진 자들은 안다.

불행은 장엄 열반이다.

너도 우니? 울어라, 울음도

견딤의 한 형식인 것을,

달의 뒤편에서 명자나무가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마라.

---

1955년 논산 연무 출생. 197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 시집 『몽해향로』 외. 편운문학상 등 수상



## 잘못 배달된 화물

때때로 인생이란 잘못 배달된 화물  
몸이란 봉인된 화물

내 몸 속에 펼쳐지지 않은 한 권의 책  
내 몸 속에 알 낳는 비둘기 암컷 한 마리  
내 몸 속에 종유석이 자라나는 동굴  
내 몸 속에 날개 달린 뱀 쌍둥이  
내 몸 속에 눈이 퇴화한 동굴 박쥐 떼

태어나자마자 늑대 새끼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기 시작했고  
말을 배워 앵무새처럼 종알거렸고  
몸속에 온통 독한 회의와 의문들이  
나쁜 암종처럼 출렁거리는 청춘이 왔을 때  
나는 비에 젖어 해매 다녔다  
때로 운 나쁜 화물들은  
비에 젖은 채 배달되는 법이다

꽃피어나지 못한 채  
나는 쓴다

돌에 문자를 새겨 넣듯 고통으로 쓴다  
인생이란 무거운 책을  
생의 낱장마다 질척거리는 추억들을 새기는 것이다  
이것이, 고작 이것이  
내게 배달된 화물이란 말인가?

어느 겨울날 아침  
내게 배달된 화물은 크고 무거웠다  
연약한 팔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화물을 옮기며  
불현듯 깨닫는다  
잘못 배달되는 화물도 의외로 많은 법이다

---

전 민 호

---

## 바람길

비오는 날  
산에 오르는 사람은 안다  
산길이 물길이라는 것을  
그 빗물 계곡으로 내려와  
먼 바다에  
닿으리라는 것을

바람 부는 날  
혼자 들길을 걸어보면 안다  
바람도 길이 있다는 것을  
그 바람 골목을 휘돌아  
그대 창문을  
흔드리라는 것을

어둔 밤  
오래 별을 본 사람은 안다  
눈길이 별들의 길이라는 것을

---

1960년 논산 출생. 2018년 《애지》 등단. 시집 『아득하다 그대 눈썹』

그 별빛 눈물이 되어  
누군가에 가슴에  
고인다는 것을

---

정우일

---

## 광대 14

제 흥에 겨워 장단長短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다 문득문득 외롭다는 생각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남자男子를 버린  
여자女子 생각……

언젠가 술에 취해  
잠든 아이 들쳐업고 보채는 아이 손을 잡고 동구밖  
내 늦은 귀가를 반기는 착한 여자女子를 아내로 만나고 싶다고  
허튼 소리를 했을 때  
내 술주정을 받아주던 화진이 처녀가  
피식피식 웃었었다……

콩나물국에 밥 말아 먹는 늦은 아침  
목이 메인다

---

정 훈

---

동백 외1

백설<sup>白雪</sup>이 눈부신

하늘 한 모서리

다홍으로

불이 붙는다

차가울수록

사모치는 정화<sup>情火</sup>

그 뉘를 사모하기에

이 깊은 겨울에 애태워 피는가.

---

1911년 논산 연산 출생. 1938년 《자오선(子午線)》 등단. 작품 『머들렁』 외

## 머들령

요강원을 지나  
머들령.  
옛날 이 길로 원님이 나리고……  
등짐장사가 쉬어 넘고  
도둑이 목축이던 곳  
분흥 두루막에  
남빛 돌띠 두르고  
할아버지와 이 재를 넘었다.  
빠꾸기 자꾸 우던 날  
감장 개명화에 발이 부르르고  
파랑 감사댕기  
손에 잡고 올었더니  
흘러간 서른 헨데  
유월 하늘에 슬픔이 어린다.

---

지정순

---

## 그때 그 하늘 아래서

반백 년도 더 전  
공해도 전등 불빛조차도 없던 그때  
달빛 너무 고왔고  
별들이 유난히 빛나던 그 여름밤

모닥불 옆 멍석 위 돛자리 깔고  
엄니 무릎 베고 누우면  
은하수 저편에서 별똥별 빛을 내며 떨어지고  
우리 할머니 옛 얘기 시작된다

누구가 그 돌을 짊어지고 왔단다고  
마실 온 연순 할매  
팔아서 갑부 된 사람도 있대유  
한바탕 웃음에 도란거리는 소리 멀어지고

산과 들 헤매던 나  
커다란 별똥별 봤지

---

1948년 논산 출생. 시집 『달이 키우는 나무』



끌어안고 꺽꺽대는데

야야 꿈꿨냐

엄니 다리 뻗으며

방에 들어가 자거라

아고! 엄니

우리 집 부자 될 뻔했는디

---

차 학 순

---

## 성동에서 탑정까지

어머니!

당신의 정신 줄은 다 어디에 두고

그저 타박타박 걸으셔서 성동에서 탑정까지

그리고 탑정을 지나 또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셨나요.

엄마! 엄마!

부르는 나이든 딸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

숨은 턱까지 차올라 하늘은 아찔하고

동지의 차가운 밤, 찬바람까지 소슬 거리는 시간

당신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기억나시지요?

밤늦게 까지 놀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저물어 잠시 당신 목소리 그리워졌을 때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불러주셨던 제 이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깊은 한밤중,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 없으신지요.

---

2009년 논산 정작. 2019년 《신문예》 등단. 시집 『문학을 사랑해서』 외

성동의 풍요로운 벌판들

야트막한 야산에 펼쳐진 아름다운 동네 놀피

그리고 아름다운 강 건너면 세도

아직 한 번도 대처에 나가보지 못했지만

당신의 손때가 묻었던 논과 밭, 정든 고향의 마을들!

탐정이 어디라고 그렇게까지 먼 곳을 향해 정신없이 걷기만 하  
시나요.

어머니!

삶과 죽음이 맞닿아 수인사하는 차가운 계절

삭풍은 불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차가운 밤기운만 하나 가득!

어느 벼 낱가리 틈에서라도 편히 쉬시고 새아침에 찾아오소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

황은경

---

## 포구의 시간은 바다가 정한다

등대가 올기 시작하면 밤의 윤슬도 따라 온다  
가두어진 짙은 사방은  
청잣빛 물결 불러 모으고  
가느다란 돌고래의 노래  
먼 섬까지 퍼지며  
어부의 마음은 뱃머리까지 차오르고  
구릿빛 섬 총각 눈길은  
먼 포구를 바라본다  
배고픈 바다는 아직 새벽을 내어주지 않는데

---

논산문인협회 활동, 시집 『겨울에는 꽃이 피지 못한다』 외, 한국 여성문학100주년  
기념 문학상 수상

논 산 문 학 제

時調

---

김광순

---

## 고래가 사는 우체통 외1

바닷가 우체통에 한 마리 고래가 산다  
벧길마다 햇살 부신 지느러미 길게 깔고  
그리움 얼마나 크면 등에 푸른 혹이 날까

오늘도 수평선 너머 귀를 여는 아침이면  
돌고래 타고 온 기다림을 걷어 내고  
짧은 밤 기척도 없이 기대앉아 읽고 있다

그 파도 사이사이에 들려오는 하모니가 소리  
어부의 안방처럼 한 폭 바다는 밀려와서  
바닷가 빨간 우체통에 꼬리 붉은 고래가 산다

---

1960년 논산 성동 출생. 1988년 충청일보 신춘문예·《시조문학》 등단. 시집 『물  
총새의 달』 외. 한국시조작품상 수상

## 뼈마디 하얀 시

밤새 날개를 접어 가슴을 비웁니다  
으슬으슬 한기가 간이역을 덮는 동안  
등거죽 마른 책표지에  
새똥 같은 달이 뜨면,

뜨겁게 울다 지친 한 사내의 눈물처럼  
한사코 별을 지킨 내 프락의 꽃씨처럼  
맨 처음 파종한 그 밤  
한 줌 흙의 긴 묵도

가시에 찢린 밤 방울새의 외마디 같은  
남루를 다 버리고 밤에 홀로 야위는  
하현의 곧은 뼈마디  
하얀 시를 씹니다

---

김길순

---

## 눈오는 아침

바람이 소리 없어  
창밖을 넘겨보니  
세상이 아직 잠에서  
덜 깨인 듯하다.  
만물의  
모든 사연도  
아직 잠자는 듯하다.

그런데 저 목련나무  
눈꽃 핀 사이마다  
봉오리 축 내밀어  
벌써 봄을 부르고 있어  
보았네.  
몰래 서성이는  
부지런한 바람을.

---

1956년 논산 은진 출생. 1981년 《시조문학》 등단. 시집 『흐르는 물』 외. 대전문학  
상 수상



---

박영록

---

## 가을에 떠난 입

지난밤 요동치던 비바람은 잠에 들고  
단풍은 제멋대로 산과 들을 태우며  
초롱꽃  
불빛에 안겨  
고이 잠든 입이여.

봄이면 화사하게 가을에는 우아하게  
희망은 바람 일어 석양에 불 댕겨도  
외로움  
가슴속 깊이  
시리도록 커진다.

꽃구경 못했으니 단풍 구경 떠나자며  
보채던 반쪽 입은 무덤에 먼저 가서  
할미꽃  
씨 한 톨 쥐고  
버선발로 떠났네.

---

조근호

---

## 가을 편지

청뎃잎에  
소슬바람 불면  
너에게 편지하마.  
그리움 묻어나는  
흑백사진 머리말에  
청갯빛 하늘 닮은 사연  
술술 풀어 보내마.

풀빛만한 사연들로  
하얀 등불 익어 가면  
떨어진 꽃잎 사이로 출렁이는 네 목소리.  
너 또한  
이 밤을 밝혀 달려오고 있는가.

세상은 씹바귀맛  
아직도 낫선 강물  
문득 다가서는 네 모습이 눈물겨워  
긴긴 날 부치지 못한 편지  
이 가을엔 보내마.

---

1950년 논산 성동 출생. 1984년 《시조문학》 추천. 시집 『시간 속의 사진첩』 외.  
한국시조문학상 수상

---

최은수

---

## 산촌의 겨울

초저녁 절절 끓던 아랫목 식어가니  
해묵은 기침 소리 문고리 흔드는데  
귀잠 든 산촌의 밤은 어둠보다 깊어라

밤새워 내린 눈도 제 무게를 못 이기고  
겨운 삶 글썽이다 엎드린 뗏돌 위로  
날아온 참새 한 마리, 내민 손이 고맙다

성공한 아들한테 호강하러 간다던  
등 굽은 그 할매는 지금쯤 무얼 할까  
까무룩, 마루 끝에서 졸고 있는 저 햇살

---

1960년 논산 성동 출생. 2019~2020년 《문학의봄》 시·시조·수필 등단. 후보문학  
상 수상

## 시로 그리는 풍경

발행 2024년 7월 19일  
발행인 권선옥  
발행처 논산문화원  
조판·인쇄 이든북 042) 222-2536

\* 수록 시 · 시조는 논산문학선집 『향기로 꽃을 피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책은 충청남도과 논산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